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 선호에 관한 연구

석순화 · 금기숙⁺

수(繡) 대표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Black Fashion Preference of Korean Women in Modern Era

Soonhwa Seok · Key-Sook Geum⁺

President, Sue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11. 8. 9, 심사(수정)일: 2011. 10. 9, 게재확정일: 2011. 11. 23)

ABSTRACT

From ancient to modern days, Koreans have preferred and even worshiped white cloth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alled "the white-clad race", and the color black has seldom been used for women's clothes. In western countries too, it was only after Chanel that black color came to represent feminine beauty. Black clothes were introduced in Korea after the opening of its ports to foreign countries in 1876 and have mainly been worn as a practical color for winter coats and school uniforms. The traditional preference for white and other bright colors continued well into the 1980s. However,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aused b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flux of western cultures and ideas in the 1980s brought about the westernization of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 and resulted in the phenomenon of modern Korean women's preference for black fashion that became conspicuous from 1991.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fashion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 in 1876, the spiritual values contained in preference for white clothes have been substituted by materialistic values as people accepted the practical beauty of black fashion, and the inclination toward intrinsic natural beauty intrinsic in the aesthetic senses that preferred white clothes has been replaced by the preference for modern, elegant and sensual beauties of black fashion whose preference has begun in the 1990s.

Key words: aesthetic consciousness(미의식), black fashion preference(블랙패션선호), westernization(서구화), urbanization(도시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Key-Sook Geum, e-mail: keygeum@hongik.ac.kr

I. 서론

복식은 형태, 색채, 문양, 소재 등에 나타나는 양식적 특성을 통해 착용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나아가 해당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표출하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표현된다.¹⁾

그중에서도 색채는 복식의 형태와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호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나 민족도 공통의 독특한 선호 색을 가지기 마련이며, 개인의 선호 색은 그가 속한 시대나 국가, 민족 등 그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한 국가나 민족이 특정한 색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색채 선호는 의복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각 시대나 민족이 선호한 색채를 통하여 당 시대의 미의식과 나아가 시대정신까지도 유추해볼 수가 있다.

21세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통적으로 검정색이 강세인 남성복 뿐 아니라 여성복에도 검정색 의상에 대한 선호현상이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대생으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구분 없이 검정색을 즐겨 입고 있으며, 이전에는 결혼식 하객의 옷으로는 금기되었던 검정색 의상도 결혼식장에 넘쳐나고 있다. 소복(素服)이라 불리던 백색의 상복도 거의 검정색으로 바뀌어, 이제는 백의민족(白衣民族)이 아니라 흑의민족(黑衣民族)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의상을 즐겨 입고 있으며, 검정색 의상의 선호에 관해 말하는 것이 진부할 정도로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검정색은 서양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색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양에 나타난 검정색 의상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검정색 의상 선호에 관한 연구는 <검은색 선호심리에 대한 의식조사>²⁾가 있을 뿐이며, 그 내용도 의복과 패션소품의 구매 시 기호 색과 선택색이 일치하는지를 밝히고자한 것일 뿐이었다.³⁾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신문기사와 졸업앨범 조사, 상복(喪服)과 설문조사, 종합적 논의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 선호현상에 주목하여 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서양과 우리나라에 나타난 블랙패션과 우리나라의 의복 색 선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신문기사와 대학교 졸업앨범을 조사하여 현재와 같은 블랙패션 선호의 시작과 변화과정,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확인하였다. 검색도구인 KINDS⁴⁾를 사용하여 블랙패션의 유행에 관한 신문 기사를 추려, 연도별 기사 수로 그려진 그래프를 분석하고, 홍익대학교 졸업 앨범에서 각 연도별로 사진에 나타난 여성들의 의상의 색채와 전체 의상에서 검정색 의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와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2011년 현재의 블랙패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들의 상복에서 검정색 치마저고리가 차지하는 비율, 서울과 지방의 선호도 차이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전반적인 검정색 의상 착용실태와 선호도, 선호 이유 등을 알아보고 연령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2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7세 이상 성인여성⁵⁾을 대상으로 서울 295부(67%), 보령 54부(12.3%), 전주39부(8.9%), 제주도 52부(11.8%), 총 440부를 조사하였다.⁶⁾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PASW Statistics Data Edito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방법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선호도를, 교차분석 방법으로 지역, 연령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종합적 논의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사실들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대 한국 여성이 선호하는 블랙패션의 미적특징과 미적가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블랙패션 선호에 미친 서양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백의호상과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 선호를 비교하여 거기에 나타난 미의식과 시대정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 선호가 단순히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유행의 하나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백의호상과 밝은 색 선호의 전통적인 미의식

이 서구적인 블랙패션 선호의 미의식으로 변화한데서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의복 선호색의 변화를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II. 일반적 고찰

1. 서양에 나타난 블랙패션

중세의 블랙은 전통적인 상(喪)의 상징이었으며, 중세 말까지 노동자 계급은 거의 블랙 옷을 입었다.⁷⁾ 15세기 최고의 상업국가인 베네치아의 귀족들은 블랙 토가를 입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도 널리 착용되기는 했지만, 사회에서 부, 지위, 권력을 가진 남성만이 착용하는 제복 같은 의미로 여겨졌다.⁸⁾ 16세기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블랙의상을 입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블랙의상을 유럽과 신대륙에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몫을 했다.⁹⁾ 17세기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네덜란드는 부유한 부르주아지에 의해 지배되었는데¹⁰⁾, 그들은 종교적 이념의 영향으로 블랙의상을 소박과 검소의 상징으로 착용하였다.¹¹⁾ 18세기 말까지 남성복은 여전히 화려하였으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폭이 넓은 검은 모직물이 실크와 벨벳을 대신하여 새로운 남성복의 소재로 쓰이게 되었으며, 이들은 점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일상복을 입게 되었다.¹²⁾ 19세기 말 남성복은 현대적 형태를 거의 완성하였으며¹³⁾ 영국의 맨디가 블랙을 남성복의 색채로 정착시켰다.¹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상류사회의 전통주의자들은 사회계급 제도를 유지하고자 했으므로 하녀가 여주인의 옷을 모방하지 못하게 했고, 하녀의 의상을 블랙 드레스, 캡, 에이프런으로 제한했다.¹⁵⁾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시대의 도래로, 검정색이 초기 기계생산물에 널리 사용되어, 검정색은 현대성을 대표하는 색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¹⁶⁾ 1926년 샤넬(Coco Chanel)은 단순성과 가능성을 강조한 리틀 블랙드레스를 발표하였다. 변화하는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생활인,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여성들에게 옷을 맞춤으로써 처음으로 자유와 현대성을 의상에 표현한 것이다.¹⁷⁾ 비오네(Madeline

Vionnet)는 바이어스 재단을 이용하여 등이 깊게 파인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였고, 스키피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도 관능적인 이미지의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였다.¹⁸⁾ 디오르(Christian Dior)는 1947년 뉴욕을 발표한 후 매년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 새로운 라인을 발표하여 유행을 주도하였는데, 그는 의복의 형태를 중요시하였으므로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할 때 블랙을 사용하여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주었다.¹⁹⁾ 1950-1960년대에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난 비트족(beats), 모즈(Mods), 록커(Rockers) 등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패션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들의 의상에서 블랙은 자신을 표현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1968년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상하 모두 검정색으로 된 팬츠 수트를 발표하였다. 팬츠 수트, 즉 판탈롱은 여성을 위하여 도시 생활에 적합하게 제시된 새로운 의복으로, 여성복을 스커트 일색에서 탈피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²⁰⁾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난 핑크는 블랙을 사용해 죽음, 절망, 공포, 공허를 표현하였다.²¹⁾ 1980년대에는 역삼각형 실루엣의 파워 룩 드레스와 수트가 유행하였는데, 검정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을 주로 사용하여, 여자들이 점점 남자들과 어깨를 겨누며 동등한 위치를 찾아가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²²⁾ 이세이 미야케,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1980년대에 빅 룩(Big Look)인 재패니스 룩(Japanese Look)을 유행시켰으며, 일본문화에 만연했던 검정색을 비롯한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였다.²³⁾ 옷이 여성들의 매력적인 몸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바디 컨셔스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다.²⁴⁾ 몸매의 곡선을 부각하고 외곽선을 나타내는데 블랙은 가장 적합한 색채로 사용되었다. 의복을 매개체로 하여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페티시 패션(Fetish Fashion)은 검정색의 고무, PVC, 플라스틱 등의 번들거리는 질감이 나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였다.²⁵⁾ 1990년대를 특징짓는 미니멀리즘 패션은 단순한 실루엣에 의복의 기본요소만을 최소한으로 표현하였으며, 주요한 색채로 블랙이 흰색과 함께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시스루 룩이나 란제리 룩을 통해 여성을 관능적으로 표현하였으

며, 블랙이 다른 색상보다 피부와의 색상대비가 크기 때문에 여성의 아름다움을 관능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였으므로 블랙을 많이 사용하였다. 2008년 갑자기 불어 닥친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실용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었고, 패션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새로운 패션의 예상가치도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바로 믹스&매치 형태의 레이어드 스타일이었다. 믹스&매치 스타일은 21세기의 빠르고 다양한 패션 트렌드들을 하이브리드²⁶⁾하여 독특한 자아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고,²⁷⁾ 다양한 색채를 조화시키는 블랙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수용하였다.

2. 우리나라의 의복 색 선호와 블랙패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백의를 숭상하고 즐겨 입어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불리었다. 한민족이 부여시대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던 사실은 '부여 인들은 흰색 옷을 숭상하여 흰색의 소매가 넓은 포와 바지를 입는다.'²⁸⁾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도 백의풍속이 계속된 사실을 여타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²⁹⁾ 조선시대의 복식에 나타나는 백의풍속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거니와, 일반백성과 양반사대부들 모두가 백의를 매우 선호하여 서민들의 평상복과 속옷, 양반사대부들의 남성용 편복(便服)과 상복(常服)으로 착용하였으며, 무당들의 무복(巫服) 등의 종교복식, 제례복, 초상 중에 입는 상복(喪服), 학창의와 심의 등의 학자 복으로 백의를 착용하였다.³⁰⁾

한편 우리민족의 복식에서 검정색은 일상복보다는 면복, 제례복, 법복, 도복, 무복 등 의례용이나 수행용 의복으로 착용되었다. 또한 심의, 학창의, 사규삼, 복건에서 보듯이 선비나 학자의 복식을 구분하는 주요색이자 관모 종류의 색으로 사용하였다.³¹⁾ 여성들의 복식에서 검정색은 염의(褌衣)나 소의(宵衣) 등³²⁾의 예복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기는 하나 자주 사용되었던 색은 아니다.³³⁾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서양문물이 유입되었고 복식도 서양화되기 시작하였다. 개화기에 남성들의 제복에서 시작된 블랙패션은 남성복 위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복에서는 신여성들의 검정 통치마와 교복, 일제강점기의 몸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제는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백의금지(白衣禁止)와 색의(色衣)입기를 권장하였는데 여기서 색의란 흑의(黑衣)였다.³⁴⁾ 흰 옷은 자주 세탁을 해야 하므로 비경제적이고 겨울이면 열을 흡수하지 않아 보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를 내세운 백의금지운동의 본래 의도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단결심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³⁵⁾ 해방 후에는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미군복이나 구호물자를 검정색으로 염색한 옷³⁶⁾과, 담요에 검정색으로 염색하여 만든 코트가 많았다.³⁷⁾ 1960년대에는 양장이 여성들의 일상복으로 정착하였고³⁸⁾,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꽃무늬와 기하학적인 문양 등 다양한 문양이 유행하였다.³⁹⁾ 1980년대에는 컬러 TV의 방영과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의 영향으로 의복의 색채가 더욱 화려한 색상으로 변화하였다.⁴⁰⁾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의복 선호색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승옥⁴¹⁾은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여성동아」와 「여성자신」에 나타난 의복색의 출현빈도를 조사하여 유행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춘하복에는 고명도, 추동복에는 저명도가 나타났으며, 유행색의 주기는 빨강, 노랑, 파랑, 자주, 검정, 회색에서 나타났는데, 회색만 10년 주기였고 다른 색상은 4-5년의 주기로 출현하였다. 그런데 1984년 이후 검정색의 유행주기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는 색채주기에 맞지 않는 이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선원⁴²⁾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체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상복은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과 유행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진⁴³⁾의 연구에서는 1961-199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선호한 의복의 색상은 무지의 밝고 경쾌한 인상을 주는 비비드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정아⁴⁴⁾는 주부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기호 색과 의복이나 패션소품을 구매할 때의 선택 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은 무채색 계열에서 흰색을 많

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부층은 검정색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선택 색에 있어서는 여대생과 주부 모두 검정색을 선택하였다. 석재은⁴⁵⁾의 연구에서는 성인여성들이 봄에는 노랑과 분홍, 여름에는 파랑과 흰색, 가을에는 밤색과 보라, 겨울에는 검정과 밤색 등 계절 감각에 맞는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KBS한국색채연구소에서 실시한 「제4차 색채 선호도 조사, 결과, 검정색은 선호 색에서는 2위, 자가용과 의류의 선호 색에서는 1위, 가전용품의 선호 색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김영인⁴⁶⁾의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이 봄 정장은 베이지>흰색>검정 또는 연한 녹색의 순으로, 여름 정장은 흰색>파랑>밝은 회색의 순으로, 가을에는 갈색>베이지>검정을, 겨울에는 검정>짙은 회색>감색 등을 선호하였다.

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여성복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블랙패션의 선호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복에서 봄, 여름에는 밝은 색, 가을, 겨울에는 어두운 색이라는 계절에 따른 선호 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1980년대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모든 연구에서 블랙이 의복의 선호 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1992년 권정아의 <검은색 선호심리에 대한 의식조사>라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여성복에서 블랙패션의 선호현상이 눈에 띄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 하겠다. 여성복 색채선호에 대한 1980년대의 논문들과는 달리 처음으로 블랙이라는 색채에 주목한 것이다. 셋째, 1998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권위 있는 조사에서 의복의 선호 색으로 블랙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조정미와 김영인의 연구에서도 계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정장의 경우 여름을 제외하고는 블랙이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류금희⁴⁷⁾는 2005-2007년 우리나라 패션마켓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구매 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블랙이 3년간 계절에 상관없이 5위 안에 들었고 12개 시즌 중 7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가을과 겨울에는 항상 1위였고, 봄에는 5→2→1위로, 여름에는

4→3→2위로 해가 가면서 순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과거에는 블랙을 입지 않았던 봄이나 여름에도 블랙을 즐겨 입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나타난 여성복의 색 선호나 블랙패션 선호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 다음 장의 연구들을 통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여성복에 나타난 블랙패션 선호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III. 현대 한국 여성복의 블랙패션 사례

1. 신문기사에 나타난 블랙패션

문헌연구의 결과 현재와 같은 블랙패션 선호가 대체로 1990년대부터 나타났음을 확인하였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블랙패션 유행의 시작과 변화과정,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다. 블랙패션의 유행이 현저했을 때는 이에 관해 보도하는 신문 기사의 수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유행이 잦아들면 기사의 수도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서울지역 10개 종합일간지⁴⁸⁾를 대상으로, '블랙' '검은색' '검정색'을 검색어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1년 단위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 각 연도별로 블랙패션의 유행에 관해 보도한 기사를 추려 다음과 같이 연도별 기사의 수를 기록하여 그래프를 그려 분석하고, 특징적인 기사를 간추려 기록하였다.

1) 블랙패션의 유행에 관한 기사 수 그래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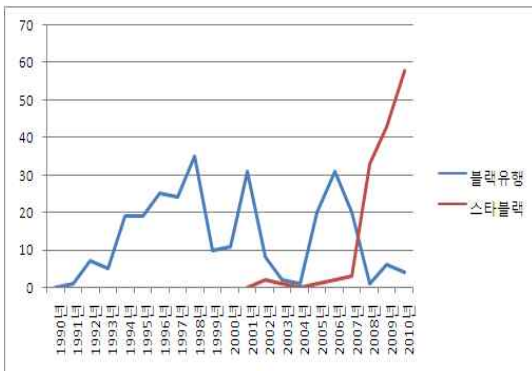
먼저 블랙패션의 유행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의 수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와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분석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에서 스타들이 착용한 블랙패션에 대한 기사는 블랙패션의 유행에 관해 보도한 기사 수와는 별도로 괄호 안의 숫자로 표시하였고, 그래프에서는 빨간색의 '스타블랙'으로 나타냈다.

검색 결과로 기록된 숫자는 블랙패션의 유행을 보도한 기사가 검색된 숫자이므로 단 한 건이라 해도 의미가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블랙패션의 유행이

〈표 1〉 블랙패션 유행에 관한 기사 수

연 도	기사 수	연 도	기사 수
1990년	0	2001년	31
1991년	1	2002년	8(2)
1992년	7	2003년	2(1)
1993년	5	2004년	1
1994년	19	2005년	20(1)
1995년	19	2006년	31(2)
1996년	25	2007년	20(3)
1997년	24	2008년	1(33)
1998년	35	2009년	6(43)
1999년	10	2010년	4(58)
2000년	11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 위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1〉 블랙패션의 유행 기사 수 그래프

첫째, 1991년 처음으로 블랙패션의 유행을 보도하는 기사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1991년 처음으로 블랙패션의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블랙패션의 유행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9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으로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 변화가 급속해짐에 따라 유행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첫 번째 유행주기의 시작인 1991년의 숫자가 1건인데 비하여 첫 번째 유행주기의 최저점인 1999년의 숫자가 10건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1999년 무렵에는 유행과 상관없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블랙패션을 입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

째, 기사의 수는 1990년도가 2000년대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블랙패션을 입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10년 이상 블랙패션의 유행이 지속되고 기사화되면서 블랙패션의 유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식상해진 결과라 이해된다. 다섯째, 2008년 이후부터 스타들이 착용한 블랙패션에 관한 보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블랙패션의 유행이 2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반인들의 블랙패션 선호는 일상적인 현상이 된 반면에 스타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스타들이 착용한 블랙패션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2) 기사의 내용

연도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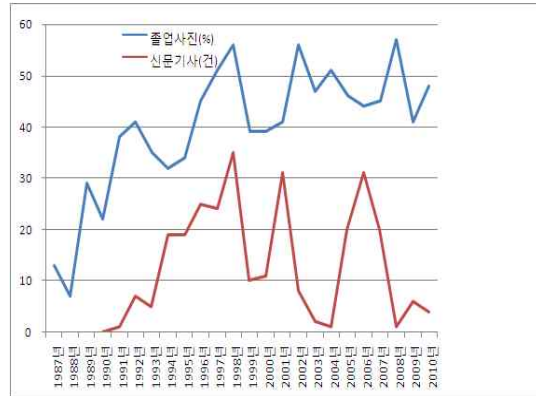
1991년 '직장 여성들이 좋아하는 정장 색깔은 검은색과 갈색'⁴⁹⁾, 1995년 '젊은 여성층에 올 블랙 급증'⁵⁰⁾, 1996년 '직장여성 옷차림에 검정슈트 필수'⁵¹⁾, 1997년 '여름철에 블랙이 유행하는 이유'⁵²⁾, 1998년 '블랙 팬츠수트나 투피스가 신부예복으로 각광받고 있다.'⁵³⁾, 2000년 '여성의류매장 대부분이 검정색'⁵⁴⁾, 2001년 '시도 때도 없는 꼴볼견 장례식 패션'⁵⁵⁾, 2005년 '블랙의 부활'⁵⁶⁾, 2006년 '블랙열풍'⁵⁷⁾, '블랙 미니 멀리즘 부활'⁵⁸⁾ 2007년 '상가(喪家)스타일 거리 점령, 10, 20대 레이어드 룩에 어울리는 블랙의류 필수 아이템, 하이브리드 형 소비패턴에 따라 블랙 선호'⁵⁹⁾, '영화 「황진이」의 검정색 한복'⁶⁰⁾, 2008년 '레드카펫 위의 스타들 드레스 코드는 룩 & 블랙'⁶¹⁾, 2009년

'걸 그룹의 록 시크 룩의 키워드는 올 블랙'⁶²⁾, 2010년 '김연아의 검은색 드레스는 007 본드 걸의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⁶³⁾ 등이다.

석하였다. 사진에 나타난 의상이 투피스나 쓰리피스일 경우 한 가지만 검정색이어도 블랙패션으로 포함시켰다.

2. 졸업 기념사진에 나타난 블랙패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블랙패션의 유행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로 홍익대학교의 졸업 기념사진⁶⁴⁾을 조사하였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촬영하는 졸업 기념사진은 연도별로 나타나는 의상의 색채변화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며, 사진을 찍을 때는 학생들 각자가 성장(盛粧)을 하여 촬영에 임하게 되므로, 해당되는 연도의 유행을 볼 수 있는 자료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홍익대학교의 졸업 기념사진은 매년 5월에 촬영하므로 블랙을 많이 입는 가을이나 겨울에 비해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1990년부터 2010년이지만, 이전시대와의 비교를 위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간의 사진을 더 추가하였다.



〈그림 2〉 졸업 기념사진과 신문기사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빈도 비교

위의 그래프를 앞서 분석한 블랙패션의 유행에 관한 기사 수 그래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졸업 기념사진에 나타난 블랙패션 비율 그래프 분석

먼저 불어불문과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의 졸업 기념사진 속 여성들을 합하여,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 중에서 블랙패션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와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분

첫째, 블랙패션의 비율이 전체의 삼분의 일을 넘어 38%를 나타낸 1991년을 유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신문기사에 처음으로 블랙패션의 유행을 알리는 기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991년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둘째, 1990년대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표 2〉 졸업 기념사진의 블랙패션 비율

연도	전체/블랙	블랙비율	연도	전체/블랙	블랙비율
'87	7/56	13%	'99	16/41	39%
'88	4/58	7%	'00	18/46	39%
'89	17/59	29%	'01	17/41	41%
'90	15/67	22%	'02	29/54	54%
'91	26/69	38%	'03	21/45	47%
'92	20/49	41%	'04	23/45	51%
'93	12/34	35%	'05	16/35	46%
'94	11/34	32%	'06	23/52	44%
'95	12/35	34%	'07	15/32	47%
'96	20/44	45%	'08	29/51	57%
'97	18/35	51%	'09	15/37	41%
'98	22/39	56%	'10	16/33	48%

블랙패션의 유행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9년 동안 한 번의 주기를 나타냈고 1998년에 정점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00년대의 그래프는 구체적인 연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두 번의 유행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그래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사진에 나타난 블랙패션 비율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월등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사진 속의 여성들의 39% 이상 57%까지가 블랙패션을 착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블랙패션의 유행이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안정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00년대의 신문기사 수가 1990년대보다 적었던 이유가 블랙패션의 유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 신문기사에서 언급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2) 졸업 기념사진 분석

1987-1989년의 졸업 기념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양, 검정, 빨강, 파랑, 노랑, 분홍, 연두, 갈색, 하늘색 등 다양한 색상의 의상을 입고 있으며, 1989년에는 29%로 갑자기 블랙패션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1990년 사진 속 여성들의 의상에는 빨강, 보라, 파랑, 회색 등 다양한 색상과 패턴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1993년까지는 비교적 다양한 색상과 꽃무늬 등의 패턴으로 된 의상을 볼 수 있다. 1994, 1995년 블랙패션의 비율은 전 시기보다 낮아져서, 사진의 느낌은 많이 밝아졌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1994년 봄, 여름에는 흰색이, 1995년 봄, 여름에는 베이지가 블랙을 제치고 가장 크게 유행하였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흰색과 베이지를 비롯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의 사진부터는 상하를 모두 검정색으로 입는 팬츠 수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여성층에 올 블랙 급증'이라고 보도했던 1995년의 신문기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은 사진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를 기록한 해이다. 사진의 느낌도 많이 어두워졌다. 블랙패션의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1998년의 사진은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명의 여성 중 12명이 검정색 수트를 입고 있어서 마치 제복을 입고 있는 듯하다. 유채색은 찾아볼 수 없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올 블랙패션', '장례식 패션' 혹은 '까마귀 패션'이다. 블랙패션



〈그림 3〉 1987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4〉 1990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5〉 1994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6〉 1998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7〉 2000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8〉 2002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9〉 2006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그림 10〉 2010년
- 홍익대학교졸업앨범

의 유행이 갑자기 찾아든 1999년 사진 속 여성들의 의상에는 검정색과 흰색 외에 빨강색과 갈색, 푸른색, 하늘색 등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상하를 한 벌로 입는 검정색 팬츠 수트와 스커트 수트는 여전하다.

2000년대의 졸업 기념사진에 나타난 특징을 찾는다면 사진에 나타난 여성들의 의상에서 블랙패션의 비율이 언제나 39% 이상 59%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을 촬영한 시기가 가을이나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검정색을 많이 입지 않는 늦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든 사진에서 블랙패션을 많이 볼 수 있다. 몇 벌의 의상을 제외하면 거의 색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상하를 한 벌로 입는 팬츠 수트와 스커트 수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그러나 2002년의 사진에서는 하늘색, 연두색, 초록색 등의 유채색 의상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례식 사진 같았던 1998년의 사진과는 다른 점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진 속 블랙패션에 나타나는 특징은 상하를 한 벌로 입는 팬츠 수트와 스커트 수트가 거의 사라지고 원피스 이외의 블랙패션을 착용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블랙패션을 다른 색상의 옷과 조합시켜 입고 있어서 올 블랙 수트가 주었던 제복 같은 느낌보다 다채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10, 20대 레이어드 룩에 어울리는 블랙의류 필수 아이템', '하이브리드 형 소비패턴에 따라 블랙 선호'라고 보도했던 2007년 신문기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상복(喪服)에 나타난 블랙패션

소복(素服)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상복의 색은 전통적으로 백색이라고 불리는 소색(素色)이었으나, 2011년 서울의 경우, 오래전에 검정색으로 바뀐 남성들의 상복을 포함해 여성들의 상복도 거의 검정색 치마저고리로 바뀌었다. 상복의 색채가 백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한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채가 우리나라의 백색에서 서양의 검정색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의복의 선호색이 우리나라의 백색에서 서양의 검정색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양자 모두 의복색이 서구화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 상복의 변화와 그 이유

각 가정에서 치러지던 장례를 1980년대 중반부터 종합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의 증가 등으로 거주공간의 협소화, 가족기능의 분절화, 편의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⁶⁵⁾ 남성들의 상복이 먼저 백색 굴건제복에서 검정색 양복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이후 여성들의 상복도 점차 검정색 치마저고리로 바뀌었다.⁶⁶⁾ 여성 상복의 색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뀐 이유는 때가 타지 않고 구겨져도 표가 덜 나는 검정색의 실용성 때문이며, 대개 화장을 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는 여성 상주의 얼굴을 밝아보이게 한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 상복은 형태와 색채 모두 서양식으로, 여성 상복은 형태는 전통복식인 한복에 색채만 서양식으로 불균형을 보이는 모습은, 정장의 경우 남성은 한복보다 양복이 편하지만 여성은 몸에 꼭 맞는 양장보다는 가슴 아래를 헐렁하게 감추어주는 치마저고리 형태가 더 편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활동하기 편한 형태와 색채를 택해 정착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검정색 일색인 장례식장에서 손님과 상주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차별화도 한복 상복을 유지시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상복이 검정색 치마저고리로 바뀐 시기에 관해 정확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박 정석⁶⁷⁾의 연구와 윤 은영⁶⁸⁾의 연구를 참조하여, 서울에서 2000년대에는 이미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검정색 한복비율의 지역별 차이

전국에 산재한 장례식장 가운데서 27군데를 선정하여 2011년 5월 현재 여성들의 상복에서 검정색 한복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검정색 한복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5%-95%까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⁶⁹⁾

검정색 한복의 비율이 '90%이상'이라고 답한 곳은 서울 강남구, 대전, 경주, 익산, 여수에 위치한 장례식장들이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산업화와 도시

〈표 3〉 검정색 한복 착용 비율

지역	장례식장	검정색 비율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	95%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장례식장	-	80%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장례식장	-	80%
경기도	파주시 파주병원장례식장	-	70%
	광명시 광명연세병원장례식장	-	70%
	안산시 고려대안산병원장례식장	-	80-90%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천한방병원 장례식장	-	80%
	강화군 강화장례식장	섬	30%
대전광역시	서구 건양대학병원장례식장	-	90%
	서구 성심장례식장	-	70%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병원장례식장	-	80%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의료원장례식장	-	60%
	보령시 보령장례식장	-	70%
경상북도	대구시 경북대병원장례식장	-	80%
	경주시 경주 장례식장	-	95%
	안동시 안동의료원장례식장	-	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백병원장례식장	섬	60%
전라북도	익산시 성산장례식장	-	90%
	전주시 새전주병원	-	60-70%
	전주시 고려병원장례식장	-	70-80%
전라남도	구례시 구례장례식장	-	80%
	고흥군 거금장례식장	섬	60%
	여수시 경산장례식장	-	95%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 병원장례식장	-	60%
제주도	제주시 함덕제주장례식장	섬	10-20%
	제주시 제주장례문화센터	섬	10%
	제주시 제주그린장례식장	섬	5%

화가 최고로 진행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가장 변화하고 부유한 지역이며, 대전은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 경주는 최고의 관광 도시,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 확정된 국제적인 신 해양도시이다.

60% 이하라고 대답한 곳은 제주도, 강화군, 공주시, 거제시, 고흥군, 광주시, 안동시에 위치한 장례식장들이었다. 특히 제주도와 안동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굴건제복과 소복의 전통상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유교적인 보수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며, 경상북도 안동은 도산서원이 위치한 유림(儒林)의 본거지로 전통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공주시, 광주시와 거제도, 강화도, 거금도 등도 보수성이 강한 지역으로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 상복에서 검정색 한복의 비율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 중심과 변두리 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강남과 중심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상복에서 검정색 한복의 착용비율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블랙패션의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보수적인 성향의 비도시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복의 지역적인 차이가 5%-95%로,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적인 블랙패션 선호도의 차이인 2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상복이 죽음이나 효(孝)와 같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나 정신적인 가치와 관련된 의례복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복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차이는 한 집단의 가치관이 의복의 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좋은 예이다.

4. 블랙패션에 관한 설문조사

블랙패션의 선호에 관한 현재의 상황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고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블랙패션의 선호도는 응답자 440명 중 296명이 '아주 좋아 한다'와 '좋아 한다'고 응답하여 67.3%로 나타났다.

블랙패션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은 블랙패션에 대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느낌들이 모두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다중응답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련되다' (292명/66.4%), '실용적이다' (228명/51.8%), '현대적이다' (163명/37.7%), '멋지다' (151명/34.3%) 순으로 나타났다.

블랙패션을 입는 이유는 '다른 옷과 조화가 잘되기 때문' (169명/38.4%), '유행에 상관없이 언제나 입을 수 있기 때문' (119명/27%), '날씬해 보이니까' (61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때가 안타서'는 (8명/1.8%), '실용적이라서'는 (26명/5.9%)로 나타났다. 여기서 블랙패션의 실용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신을 가장 멋지게 보이게 하는 옷'으로 블랙패션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블랙패션을 주로 입는 경우는 '평상복' (264명/60%), '장례식' (228명/51.8%), '가족이나 친구 모임' (119명/27%), '출근복' (118명/26.8%)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블랙패션을 입어야 하는 장례식보다도 평상시에 블랙패션을 더 많이 입는다는 응답 결과가 나온 것은, 장례식에 참석한 경험이 적은 젊은 층들이 '장례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평상복에 더 비중을 두고 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블랙패션은 이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입는 옷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응답결과라 할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블랙패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71.7%, 보령 73.1%, 전주 53.8%, 제주 51%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등이 있는 서해안 최대 관광지이다. 전주시는 전주향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한식·한지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도시이다. 제주도는 상복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안동과 더불어 굴건

제복과 소복의 전통상례를 고수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며, 조사대상지인 서귀포시 대정읍은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소읍으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블랙패션의 선호도는 서울과 상업지구인 보령에서는 평균적인 선호도보다 높게, 보수적인 도시인 전주와 제주에서는 낮게 나타나, 약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블랙패션의 선호도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보수적인 성향의 비도시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블랙패션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17-19세 69.5%, 20-29세 85.3%, 30-39세 64.3%, 40-49세 63.3%, 50-59세 54.6%, 60세 이상 50.1%로 나타났다. 현재의 2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며, 198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로 인한 미의식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20대 이하에서 블랙패션의 선호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층이 서구적인 문화와 사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도시적이고 서구적인 미의식의 결과인 블랙패션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라 이해된다. 즉 블랙패션의 선호도는 서구화의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랙패션을 많이 입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이 (313명/71.1%)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랙패션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종합적 논의

1. 현대 한국 여성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

현대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앞선 블랙패션 선호 사례 조사 결과로 나타난 사실들로부터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 미적 특징의 근원이 된 현대 한국여성들의 미적 가치를 유추하였다.

현대 한국 여성 블랙패션에 나타나는 미적 가치는

〈표 4〉 신문기사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

기사 내용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	미적 가치
여름의 들머리라는 입하가 지났는데도 '블랙 패션'이 여전히 인기다. 따뜻하다 못해 덥기까지 한 늦봄에 웬 칙칙한 검정색? 가장 고전적이고 통속적인 해석은 '블랙은 경제 색'이라는 경제적 접근 방식이다. 유행을 심하게 타는 튀는 색상보다는 세련되고 아름다우면서도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검정이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제격이라는 것이다. ⁷⁰⁾ 신부예복 "한번 입을 옷은 싫다"	1. 블랙패션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2. 세련되고 아름답다. 3. 경제적이다.	실용미 현대미
자칫 어둡고 딱딱해 보이는 검정색 바지수트나 투피스가 예복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의 예복이 빛나는 하루를 위한 투자였다면 요즘 인기 있는 실용 예복은 다양한 쓰임새에 맞춘 합리적 스타일이다. IMF형 실용 예복은 결혼식 날의 피로연, 신혼여행지는 물론 돌아와 친지를 방문할 때, 그리고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만능패션」 기능을 한다. ⁷¹⁾	1. 블랙패션은 어떤 경우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합리적이다. 3. 실용적이다.	실용미 현대미
'검은 가을' 거리 물들인다./ 검정의 가장 큰 매력은 날씬해 보인다는 것. 미국의 패션평론가 토비 피셔 미르킨은 저서 '패션 속으로'에서 "검은색은 신체의 곡선을 살려주고 사소한 결함을 가려주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잃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⁷²⁾	1. 블랙패션은 날씬해 보인다. 2. 신체의 곡선을 살려준다. 3. 사소한 결함을 가려준다. 4.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5. 우아한 매력이 있다.	우아미
우아하고 섹시한 블랙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의 레드카펫 패션은 블랙이 대세였다. 우선 눈길을 끈 스타는 'J 린드버그'의 롱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엄정화. 앞모습은 목까지 올라온 우아한 여신 스타일, 뒷모습은 등이 과감하게 파인 섹시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블랙 미니드레스를 선택한 한채영은 어깨를 드러낸 '로에베' 드레스를 입고 섹시미를 자랑했다. ⁷³⁾	1. 블랙패션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잘 나타낸다. 2. 노출을 통해 섹시한 아름다움을 잘 나타낸다.	우아미 관능미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블랙의 유행에 대해 한국인의 양극화된 소비패턴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끼리 상·하의를 한 브랜드에서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품질은 고가(高價) 제품을, 셔츠와 같은 이너웨어는 값이 싼 브랜드 제품이나 보세 매장에서 구입하는 하이브리드형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것. 이 때문에 외투는 어느 색과도 잘 어울리는 블랙을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⁷⁴⁾	1. 블랙패션은 다른 색의 옷과 조화가 잘된다. 2.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용미
영화 '황진이' 눈으로 즐기기 / 검은 화려함 붉은색이 이제까지 기생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검정색 한복 하면 상복만 떠올리는 고정관념도 깨고 싶었어요. 현대에 검은색은 어떤 파티에도 어울리는 화려하고 세련된 빛깔이죠. 이를 한복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화담을 유혹하러 떠나는 길에 황진이는 검은 베일을 늘어뜨린다. 고을 수령 김희열과 담판을 지으러 가며 그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으로 휘감았다. ⁷⁵⁾	1. 블랙패션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세련미의 상징이다. 2. 성적인 매력을 잘 표현해준다.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
스타일/ 고민스런 송년모임 모든 파티는 블랙으로 통한다. 샤넬이 '모든 색의 제왕'이라 칭했던 검은색은 파티에서도 단연 빛을 발하는 색상이다. 무난하면서도 멋스럽다. 단정한 미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만 두르면 파트너 동반의 격식 있는 모임에 잘 어울린다. 올 가을과 겨울 최고 인기 아이템인 파워 숄더 재킷에 몸매를 드러내는 검정 레깅스를 곁들여도 섹시한 트렌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임의 성격에 맞춰 블랙 아이템들을 적절히 동원하는 것. ⁷⁶⁾	1. 블랙패션은 무난하고 멋스럽다. 2.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3. 격식 있는 모임에 잘 어울린다. 4. 섹시한 매력을 잘 살려준다.	현대미 실용미 우아미 관능미

〈표 5〉 졸업 기념사진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

졸업 기념사진에 나타난 사실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	미적 가치
1990년대 이후 블랙패션을 입고 졸업 기념사진을 찍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1. 블랙패션은 멋지다. 2. 사진을 잘 받게 한다.	현대미 우아미
1998년 졸업 기념사진의 특징은 아래 위 한 벌로 된 검정색 펜츠 수트를 입은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다. 1968년 이브 생 로랑이 발표했던 블랙 펜츠 수트가 30년 후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것이다.	1. 블랙패션은 활동하는 여성에게 적합하다. 2. 올 블랙은 단순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용 미 현대미
2000년대의 졸업사진에서는 블랙패션을 다른 색상의 옷과 다양하게 조화하여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블랙패션은 다른 색상의 옷과 조화가 잘된다. 2.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용 미
19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블랙패션의 비율이 1998년에는 약 56%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에는 항상 과반수의 여성들이 블랙패션을 착용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선호되고 있다.	1. 블랙패션은 유행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 2. 어떤 경우에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입을 수 있다.	실용 미

〈표 6〉 상복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

상복에 나타난 사실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	미적 가치
상복의 색이 전통적인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화하였다.	1. 블랙패션은 때가 타지 않고 구겨져도 표가 덜 난다. 2. 다른 색상의 옷을 입었을 때 보다 입을 사람의 피부를 맑고 환하게 보이게 한다.	실용 미 우아미
남성들의 상복은 형태와 색채 모두 서양식인 검정색 양복으로, 여성들의 상복은 형태는 전통복식인 치마저고리에 색채는 서양식인 검정색으로 변화하였다.	남성들의 상복이 한복에 비해 양복이라는 편안한 형태와 검정색이라는 실용적인 색채를 택해 정착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상복도 정장의 경우 양장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한복이라는 형태에 실용적인 검정색이 결합하여 정착한 것이 지금의 검정색 치마저고리이다.	실용 미

〈표 7〉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

설문조사에 나타난 사실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	미적 가치
블랙패션을 입는 이유와 느낌	멋지다, 유행에 상관없다, 세련되다, 현대적이다.	실용미, 현대미, 우아미
블랙패션을 입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서 '평상복'이 1위로 나타났다.	블랙패션은 때가 타지 않고 활동하기 편하며 세탁과 관리가 쉽다.	실용 미
도시지역의 블랙패션 선호도가 비도시 지역에 비해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블랙패션은 산업화된 도시에 어울리는 도시의 패션이다.	현대미
블랙패션의 선호도가 17-29세까지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블랙패션 선호는 서구화된 미의식을 보여준다.	현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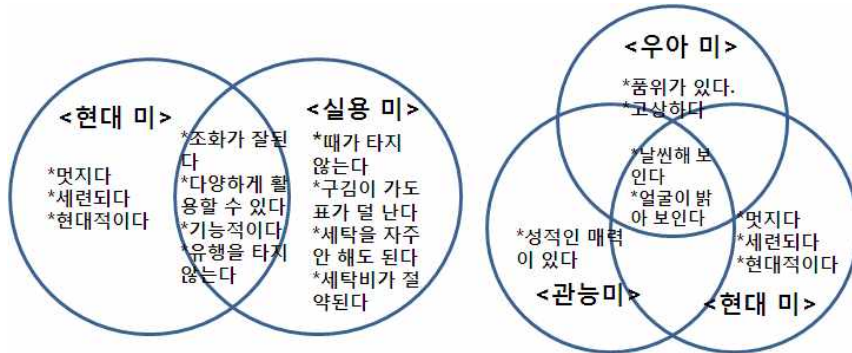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실용미,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로 나타났다.

실용미는 블랙패션이 때가 타지 않고 세탁과 관리가 편한 경제적인 의상이라는 점, 유행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의상과 조화가 잘 된다는 점, 어떠한 경우에도 어색하거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의상이라는 점에서 나타났다.

현대미는 블랙패션이 세련되고 아름다우며 산업화된 현대의 도시환경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점, 기능

성과 합리성이라는 현대적인 가치와 일치한다는 점, 활동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 준다는 점,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 여성들의 욕구를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의상이라는 점에서 나타났다.

우아미는 블랙패션이 입을 사람의 얼굴을 가장 밝고 화사하게 보이도록 하며, 몸매를 실제보다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 사소한 결점은 가려줌으로써 품위



<그림 11> 미적 특징을 공유하는 미적 가치

있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나타났습니다.

관능미는 블랙패션이 여성의 신체라인을 강조하거나 노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점, 특히 시스루 의상에서 검정색과 그 아래 비치는 피부색과의 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네 가지 미적 가치 중 관능미는 신문 기사에서밖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그 예도 2000년대 말에 급격히 늘어난 스타들의 블랙패션에 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섹시하다'는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인식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되며, 스타들의 관능미에 대해 늘어난 관심에서 그 의미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2000년대 말에 블랙패션의 관능미가 부각되고 있는 현상에 내재하는 사회의 변화는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관능적인)'⁷⁷⁾ 문제들을 더 이상 은밀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표현하게 된 것이라 보이며,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관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현대 한국 여성복의 블랙패션 사례에서 나타나는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에서 실용미,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를 유추하였으나, 하나의 미적 가치가 여러 가지 미적 특징을 포함하는 동시에 하나의 미적 특징이 여러 가지의 미적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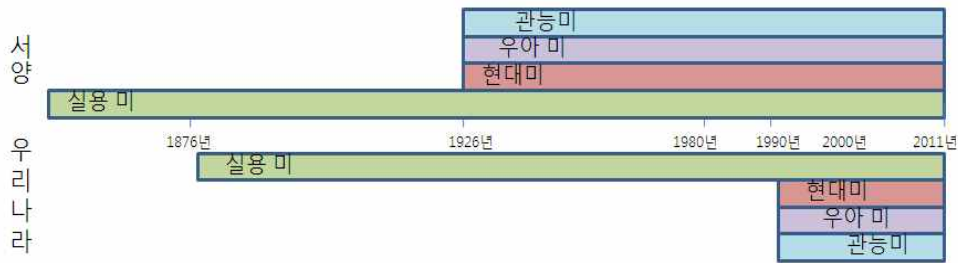
므로, 네 가지의 미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가진다. 예를 들어 현대미와 실용미는 기능성과 합리성이라는 미적 특징을 공유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날씬하다'와 '피부가 희고 좋다'는 것이 미인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에서 '날씬해 보인다.'와 '피부를 밝게 보이도록 한다.'는 블랙패션의 미적 특징은 우아미, 관능미, 현대미에 중복되어 나타난다.

2. 블랙패션에 나타난 미적 가치의 변화

개항 이후 시기별로 나타난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 여성들의 블랙패션 선호를 초래한 미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블랙패션이 유래된 서양의 영향이고, 둘째는 백의호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의복 색 선호의 전통과의 관계이다.

먼저 블랙패션이 유래된 서양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세기 이전 서양복에서 블랙패션은 상복 외에 15세기의 베네치아, 16세기의 스페인, 17세기의 네덜란드, 19세기의 덴디의 의상 등 남성복 위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세 말까지 노동자 계급은 거의 블랙 옷을 입었다.'⁷⁸⁾는 기록과 '19세기 초 하녀들은 검정색 드레스를 입었다.'⁷⁹⁾는 기록을 통해 19세기 이전에도 서양에서 블랙패션이 실용적인 이유로 착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패션의 실용성이 '검정색은 때가 타지 않는다.'는 검정색의 특성에서 유래하므로 의복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적용되었



〈그림 13〉 서양과 우리나라에 나타난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

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사회의 도래와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블랙이 현대성을 대표하는 도시의 색으로 새롭게 인식되었고, 샤넬의 리틀블랙드레스 이후에 여성복에서 현대미의 표상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리틀블랙드레스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가치는 실용미와 현대미, 우아미이며, 같은 시기의 비오네와 스키아파렐리의 블랙드레스에서는 우아미와 관능미가 발현되고 있다.⁸⁰⁾

우리나라에서도 블랙패션에서 처음 나타나는 미적 가치는 실용미이다. 서양 복식이 도입되면서 제복을 비롯한 남성들의 복식과 남녀 교복, 신여성들의 통치마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검정색 의상은 일제말의 몸뻘, 해방 후의 염색한 구호물자, 겨울철의 코트 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의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적 가치는 주로 편리함과 경제성을 미적 특징으로 하는 실용미이다. 이러한 블랙패션의 실용미에 더하여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라는 블랙패션의 미적가치가 발현되어 나타난 현상이 1990년대 이후 걸으로 드러나게 된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 선호현상이다. 즉 블랙패션이 남성복을 포함해 복식 전체에서 가지는 본래의 실용미에 더하여, 여성복에서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라는 미적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은 앞선 연구의 결과에 따라 1991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과 졸업 기념사진,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블랙패션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러한 아름다움의 인식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예전부터 실용적인 이유로 입었던 블랙패션에 새롭게 열광하

는 것은 블랙패션을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1991년을 기점으로 과거로 되돌아가 미의식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미의식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와, 미의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한다.

1980년대에는 비약적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아파트의 증가 등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은 '유신체제'로 상징되는 1970년대의 폐쇄정책에서 해외여행자유화, 수입 자유화 같은 개방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때를 시작으로 외국의 문물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 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 또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국제적인 교류와 외국과의 문화접촉 기회가 증가하였고, 이는 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어 국외와 국내 간의 패션 경향의 시차를 최소화시켰으며, 해외 브랜드가 라이선스 형태로 도입되어 본격적인 패션의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⁸¹⁾ 즉 1980년대의 경제발전과 서구화로 인한 도시적인 생활방식과 서구적인 사고의 정착으로 인해 블랙패션의 선호를 초래한 미의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승옥은 “유행색의 주기는 빨강, 노랑, 파랑, 자주, 검정, 회색에서 나타났는데, 회색만이 10년 주기였고 다른 색상은 모두 4-5년의 주기로 출현하였다. 그런데 1984년 이후 계속되는 검정색의 상승세는 색채주기에 맞지 않는 이상 현상이다.”⁸²⁾고 하였다. 1980년대에 여성복의 색상은 걸으로는 다채롭고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블랙패션의 선호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블랙패션의 선호를 초래

한 미의식의 변화도 이미 시작되어 1991년에 이르러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보겠다. 현대미가 이렇게 뒤늦게 발현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 깊은 백의호상의 미의식이 블랙패션의 미적 가치를 수용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 미의식의 변화 : 백의호상(白衣好尙)에서 흑의호상(黑衣好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백의를 숭상하고 즐겨 입어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고 불리었다. 고대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백의를 고수한 우리민족의 백색 선호처럼 오랜 세월을 지속하며 한 민족의 선호색이 변하지 않은 것은 세계사에서도 드문 일이며,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도 의복의 색으로 흰색 내지 밝은 색을 선호하였음은 앞선 연구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다.⁸³⁾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에서 검정색이 여성의 의복에서 사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⁸⁴⁾ 과거 우리나라에서 검정색은 어둡고 불길한 색이어서 검정색 의상은 결혼식과 같은 경사스러운 자리에는 입고 갈 수 없는 의상이었고, 일반 여성들에게 검정색은 의상의 색채로는 선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복에서 새롭게 나타난 블랙패션의 선호가 원래 탄생지인 서양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20년을 지속하며 심화되어 온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과거의 백의호상에 대하여 현재의 상황을 흑의호상⁸⁵⁾이라 불려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고대로부터 수 천 년 간 백의호상이 지속된 현상에 대해 금기숙 선생은 '백의는 당 시대 인들이 추구한 깨끗함, 순결함, 밝음, 화사함과 인생에 대한 미련까지도 배제한 심오한 종교적 신앙심까지 나타낸 듯하다. 특히 우리민족이 애호한 소재의 백의는 천연스러움, 인공이 배제된 자연스러움을 높이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소재의 백의는 인위적인 가공이나 의도적인 미적 의지까지도 제외한 소박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미적 특징으로 갖는다.'⁸⁶⁾ 고 밝히고 있다.

국문학자인 최현배 선생도 '우리민족이 이렇게도 완고하게 백의풍습(白衣風習)을 지켜오는 진인(眞因)은 청백(淸白)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의 심리(心理)에 그 원인이 있으며, 백의는 청결(淸潔), 결백(潔白), 빈한(貧寒)의 상징이다. 재물(財物)에서 결백을 숭상하는 우리민족은 의복에서도 결백을 숭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⁸⁷⁾

또 김은경과 김영인⁸⁸⁾은 한국인의 백의풍속(白衣風俗)에 내재된 미의식은 사상적 배경에서 배태되어 나온 미적 태도라고 밝히면서, 백의풍속의 잠재적 동인이었던 미적 가치를 '신성의 표출', '밝음의 기원', '결백의 추구', '자연동화', '인격완성의 의지'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백의와 흑의에 나타나는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흰색과 검정색이 정 반대에 위치한 색채인 것만큼이나 백의와 흑의에서 나타나는 미적 가치 역시 정 반대에 위치함을 볼 수가 있다.

첫째, 정신적인 가치 대 물질적인 가치이다.

금기숙 선생과 최현배 선생은 백의를 선호하는 심리를 공통적으로 '순결'과 '청백' 등 정신적 가치에서 찾았고, 김은경과 김영인도 백의풍속에 내재된 미의식이 사상적인 배경에서 배태되어 나왔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 내내 계속된 백의금지의 이유는 흰 옷은 자주 세탁을 해야 하므로 비경제적이고 겨울이면 열을 흡수하지 않아 보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하였으나 백의의 비실용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실용적인 백의를 선호한 것은 그 미적 가치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깨끗함, 순결함, 밝음, 화사함과 인생에 대한 미련까지도 배제한 심오한 종교적 신앙심' 등 정신적인데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상복의 변화에서 안동의 예는 현재 정신적인 가치가 의례복에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활동하기 불편하고 비실용적인 굴건제복과 소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상복이라는 의복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블랙패션 선호에서 나타나는 가치는 실



〈그림 1〉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 선호에 나타난 미의식의 변화

용성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가치이다. 블랙패션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유행을 타지 않으며, 세탁과 관리가 쉬운 경제적인 의상이라는 점에 그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 개항 이후 서양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민족이 수용한 것은 실용성과 경제성이라는 미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물질적인 가치이며 이는 실용미라는 미적 가치로 블랙패션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용미는 그 안에 기능성과 합리성 등 현대미와 공통의 미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대미의 한 부분도 이미 발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둘째, 자연미 대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이다.

백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미적 특징을 인위적인 가공이 배제된 자연스러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미 또는 자연동화라는 미적 가치로 나타난다.

우리 민족에게 흰색은 염색을 하지 않은 색으로 있는 그대로의 원색 곧 자연 그 자체를 의미했다.⁸⁹⁾ 자연스러움이 유발하는 미적 표현은 있는 그대로의 인위적인 가공이나 의도적인 미적 의지까지도 제외된 소색(素色)의 백의에서 현저하게 부각되었고, 소박하며 겸손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미적 특징으로 갖는다.⁹⁰⁾

우리민족이 애호한 백의는 자연계의 소재 색을 그대로 사용한 소복(素服)이며, 한반도의 하늘이나 산천과 좋은 조화를 보이는데⁹¹⁾ 의상이다. 이에 대해 블랙패션은 인위적으로 염색한 의상이며, 인공적으로 조성한 현대의 도시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이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의상이다.

또 과거의 여성미가 어머니와 아내와 며느리로 살

아가는 소박하고 겸손하며 순수한 여인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여성미는 남성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누며, 자신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우아하고 관능적인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 산업화와 서양문화와 사교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의식은 1991년부터 걸으며 드러난 현대 한국 여성들의 블랙패션 선호현상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미, 관능미, 우아미라는 미적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9세기 이전 서양에서 블랙패션은 상복 외에 종교적, 남성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한편 실용적인 이유로 착용되고 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블랙이 현대성을 대표하는 도시의 색으로 새롭게 인식되었고, 샤넬의 리틀블랙드레스 이후 블랙패션은 여성복에서 현대미의 표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1876년의 개항 이후 서양 복식이 도입되면서 제복을 비롯한 남성들의 복식과 남녀 교복, 신여성들의 통치마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블랙패션은 현재와 같은 블랙패션의 선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성복에서는 주로 겨울철의 코트를 비롯해 실용적인 이유로 착용되었다. 우리민족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백의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흰색 옷을 숭상하고 즐겨 입었으며,

이에 반해 검정색은 여성복의 색으로는 거의 쓰인 적이 없는 색이었다. 1980년대까지도 여성들이 선호한 의복의 색은 흰색과 밝은 색이었음을 앞선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문기사와 대학교 졸업앨범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블랙패션의 유행은 1991년에 시작하여 1998년 정점에 달한 후 1999년 급락하여 9년 동안 한 번의 주기를 나타냈고, 2000년대에는 대체로 두 번의 유행주기를 나타내며 변화되었으며, 그 유행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블랙패션의 유행이 지속되면서 점차 심화되고 안정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어 2000년대 말부터는 일반인들의 블랙패션 선호는 일상적인 현상이 된 반면에 연예인을 비롯한 스타들이 착용한 블랙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또 올 블랙으로 입던 블랙패션의 착용방법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다른 색과 조화하여 입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도 신문기사와 사진에 나타난 특징이다.

셋째, 2011년 현재 블랙패션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상복과 설문조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의 상복에서 검정색 치마저고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은 80-95%로 거의 검정색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은 지역에 따라 5-95%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되고 서구화된 대도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섬 지역 등 비도시 지역과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블랙패션의 선호도는 평균 67.3%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연령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서구화의 정도가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구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보령이 전주와 제주보다 20% 정도 높게 나타나, 상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된 대도시 지역일수록 높게, 보수적인 성향의 비도시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서양의 경우 여성복에서는 상복이나 실용적

인 이유로 입었던 블랙패션에 샤넬의 리틀블랙드레스 이후에 실용미와 함께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가 부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개항 이후 서양복의 도입과 함께 블랙패션의 실용미가 나타났고, 1980년대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로 인한 미의식의 변화로 인해 1990년대부터 드러난 현대 한국여성의 블랙패션 선호에서는 실용미와 함께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능미의 경우는 2000년대 말부터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백의호상과 블랙패션 선호에서 나타나는 미적 가치의 대비는 정신적인 가치 대 물질적인 가치, 자연미 대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이다. 백의호상을 초래하였던 미의식에 내재되었던 정신적인 가치는 1876년의 개항 이후 서양복의 도입과 더불어 블랙패션의 실용미를 수용하면서 물질적인 가치로 변화하였으며, 백의호상의 자연미를 수용하였던 미의식은 1991년부터 시작된 현대한국여성의 블랙패션선호에서 나타난 현대미, 우아미, 관능미로 대체되었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 여성의 블랙패션선호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복의 선호색이 전통적인 백색과 밝은 색에서 서양의 검정색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현상이며, 백의민족의 상징처럼 남아 있던 백색의 상복까지 검정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복식의 형태에 이어 선호색이 서양화 되는 마지막 과정이며 백의호상이 대표하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미의식이 블랙패션 선호에서 볼 수 있는 서양의 가치관과 미의식으로 변화하였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 1) 금기숙 (1998), *조선복식미술*, 파주: 열화당, p. 13.
- 2) 권정아 (1992), 검은색 선호심리에 대한 의식조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그 밖에 의복 선호색에 관한 연구로 검정색 의상과 관련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이승욱 (1987), 유행색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1999),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pp. 964-975.
조정미 (1999), 성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pp. 1-11.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 (1999), 의복 이미지 선호에 따

- 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 류학회지*, 24(1), pp. 3-14.
- 신주동, 최종명 (2007), 청주지역 대학생의 의복 선호 색과 색채 이미지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pp. 251-259.
- 4)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프로그램인 KINDS 는 1990년 1월1일 이후의 서울지역 10개 종합일간지, 25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10개 경제일간 신문, 4개 TV방송뉴스, 10개 인터넷 신문, 1개 영자일간지, 5개 지역주간신문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12월31일 현재 65개 매체 19,199,638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 5) 연령: 17-29세 60명(13.6%), 20-29세 109명(24.8%), 30-39세 88명(20.0%), 40-49세 92명(20.9%), 50-59세 75명(17.0%), 60세 이상 16명(3.6%). 교육수준: 고등학생 67명(15.2%), 대학생 60명(13.6%), 국졸이상 6명(1.4%), 중졸이상 12명(2.7%), 고졸이상 52명(11.8%), 대졸이상 234명(53.2%), 결혼여부: 기혼 215명(48.9%), 미혼 218명(49.5%).
 - 6) 서울 전역, 충남 보령시 대천 2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 7) 만리오 브루자틴, *Histoire des couleurs*, 이수균 역 (1996), *색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p. 50.
 - 8) 존 하버, *Men in black*, 최성숙 역 (2008), *블랙패션의 문화사*, 서울: 심산출판사, p. 94.
 - 9) *Ibid.*, p. 100.
 - 10)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정인희 역 (2005), *서양 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사, p. 119.
 - 11) Lurie Alison,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 역 (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pp. 176-179.
 - 12) 광혜선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p. 238.
 - 13) 김민자 외 (2010),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서울: 교문사, p. 341.
 - 14) 송명희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패션 비즈니스*, 1(1), p. 113.
 - 15) Varie Mendes, Amy de la Haye, *20th century fashion*,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 21.
 - 16) 스티븐 베일리, 손효천 역 (1985),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역사*, 파주: 열화당, p. 28.
 - 17) 박혜원, 김여숙 (2001), 리틀 블랙 드레스의 계보를 통한 미적 특성 연구, *패션 비즈니스*, 5(2), p. 3.
 - 18) 김기례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p. 1078.
 - 19) 송명희, *op. cit.*, pp. 114-115.
 - 20) *Ibid.*, p. 115.
 - 21) *Ibid.*, p. 119.
 - 22) 김영옥 외 (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경춘사, p. 317.
 - 23) 김기례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 24) *Ibid.*, p. 319.
 - 25) 송명희, *op. cit.*, p. 120.
 - 26) 기존에 어울릴 수 없는 두 영역을 혼합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다는 의미이다. 현대인들의 기호가 세분화되면서 문화코드로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자아 정체성의 표상인 패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 27) 김민자 외, *op. cit.*, pp. 346-347.
 - 28) 김은경, 김영인 (2006), 한국인의 백의풍속에 내재된 미의식, *복식*, 56(7), p. 3.
 - 29) *Ibid.*, pp. 3-4.
 - 30) *Ibid.*, p. 4.
 - 31) 이영혜, 최선영, 강순제 (2008), 복식에 나타난 흑색과 백색의 의미, *복식*, 58(3), p. 53.
 - 32)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보면 “옛날에는 혼례복에 염의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현의(玄衣)에 분홍색 단을 두른 것이다.”고 하여 숙종대(肅宗代)까지 혼례복으로 현의에다 세연(總緣)한 염의를 입어오다가 이후에 홍장삼으로 변모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염의, 소의, 연의(緣衣)는 모두 같은 것이다. 이인자 (2008), 한국의 조형미가 나타나는 예복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7-24.
 - 33) 이영혜, 최선영, 강순제, *op. cit.*, p. 53.
 - 34) 고부자 (2001), *우리생활100년·웃*, 서울: 현암사, p. 105.
 - 35) 류희경 외 (2008), *우리 옷 이천년(제2 개정판)*, 서울: 미술문화, p. 136.
 - 36) 고부자, *op. cit.*, p. 217.
 - 37) 채금석 (2007), *세계 패션의 흐름*, 파주: 지구 문화사, pp. 280-281.
 - 38)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225.
 - 39) 박길순 (1991), 한국현대여성복의 발달에 미친 요인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25.
 - 40) *Ibid.*, pp. 233-234. 김서연 (1994), 1980년대 한국여성복식의 현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5-26.
 - 41) 이승옥 (1987), 유행색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8-50.
 - 42) 백선원 (1987), 여성의류의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성희진 (1995), 현대 한국 여성 양장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의 기호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권정아, *op. cit.*
 - 45) 석재은 (1993),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 선호도와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김영인, 고애란, 홍의숙 (1999), 의복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복식*, 24(1), p. 10.
 - 47) 류금희, 박성주, 신옥 (2008), 우리나라 패션 마켓의 구매 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2(3), pp. 66-74.

- 48)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1990-2010), 자료 검색일 2011. 2. 28. <http://www.kinds.or.kr>
- 49) "대한생명, 직장인 '옷' 취향 조사" (1991. 11. 13), 한겨레신문, p. 4.
- 50) "검은색 옷 인기 상승" (1995. 12. 23), 동아일보, p. 22.
- 51) "직장여성 옷차림/검정슈트 필수" (1996. 9. 1), 한국일보, p. 23.
- 52) "여름거리 블랙물결" (1997. 7. 11), 문화일보, p. 24.
- 53) "신부예복, 한번 입을 옷은 싫다" (1998. 3. 3), 경향신문, p. 14.
- 54) "옷색갈에도 불황 그림자" (2000. 11. 25), 한겨레신문, p. 9.
- 55) "패션 꼴불견, 시도 때도 없는 장례식 패션" (2001. 11. 27), 한국일보, p. 34.
- 56) "가을패션, 검은 것이 아름답다" (2005. 8. 19), 한국일보, p. 5.
- 57) "올 패션 키워드, 블랙과 스키니 진" (2006. 12. 21), 경향신문, p. K13.
- 58) "올해의 스타일, 되돌아본 패션계" (2006. 12. 15), 한국일보, p. B5.
- 59) "블랙코드, 검은색 패션 겨울거리 점령" (2007. 12. 12), 동아경제, p. 3.
- 60) "황진이, 눈으로 즐기기, 검은 화려함" (2007. 5. 25), 한겨레신문, p. 24.
- 61) "레드카펫 위의 스타들 드레스 코드는 룡 & 블랙" (2008. 6. 28), 경향신문, p. K1.
- 62) "올 가을을 점령하라, 패션 코드명 블랙" (2009. 10. 16), 동아일보, p. C5.
- 63) "연아는 세련, 마오는 로맨틱" (2010. 2. 26), 한국일보, p. 32.
- 64) 흥익출업앨범 (1987-2010).
- 65) 이현승, 이필도 (1995), <장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8-40.
- 66) 2011년 4월,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을지대학 장례지도학과 교수 박복순 인터뷰.
- 67) 박정석 (2003), 도시지역의 장례공간과 장례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비교민속학*, 25, p. 582.
- 68) 윤은영 (2004), 현행 상례의식에 나타난 상복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8.
- 69) 2011년 4월, 장례식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장례용품 판매점의 직원과 면접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각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검정색 치마저고리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이 검정색이다.'는 95%, '거의 없다.'는 5%로 나타났다.
- 70) "늦봄에 웬블랙" (1997. 5. 9), 한겨레신문, p. 12.
- 71) "신부예복, 한번 입을 옷은 싫다" (1998. 3. 3), 경향신문, p. 14.
- 72) "검은 가을, 거리 물들인다" (2002. 8. 27), 문화일보, p. 21.
- 73) "블랙vs 노블랙,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패션" (2006. 10. 20), 동아일보 Weekend, p. 3.
- 74) "블랙코드, 검은색 패션 겨울거리 점령" (2007. 12. 12), 동아경제, p. 3.
- 75) "황진이 눈으로 즐기기 검은 화려함" (2007. 5. 25), 한겨레신문, p. 24.
- 76) "모든 파티는 블랙으로 통한다" (2009. 12. 4), 한국일보, p. 32.
- 77) '관능'이란 '육체적 쾌감,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을 뜻하며 '관능미'는 '성적인 쾌감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78) 만리오 브루자틴, *op. cit.*, p. 50.
- 79) Varie Mendes, *Amy de la Hays, 20th century fashion*,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 21.
- 80) 김기레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p. 1078.
- 81) 금기숙 외, *op. cit.*, pp. 269-270.
- 82) 이승욱, *op. cit.*, pp. 48-50.
- 83) 백선원, *op. cit.*
- 성희진, *op. cit.*
- 84) 여자 복식에서 검정색은 염이나 소의 등의 예복으로 사용된 예가 있기는 하나 자주 사용된 색은 아니다. 이영애, 최선영, 강순제, *op. cit.*, p. 53.
- 85) 남성복에서도 검정색은 기본적으로 선호되는 색이다. 남성복에서는 서양복식이 도입되어 정착하면서 검정색이 남성복의 기본적인 색으로 별 무리 없이 정착하였다. 서양의 남성복에서는 검정색이 실용성과 더불어 남성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복의 미의식과 별 충돌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 86) 금기숙, *op. cit.*, pp. 58-59.
- 87) 최현배 (1974), *조선민족 경쟁의 도*, 서울: 정음사, pp. 80-81.
- 88) 김은경, 김영인, *op. cit.*, pp. 10-16.
- 89) *Ibid.*, p. 14.
- 90) 금기숙, *op. cit.*, p. 60.
- 91) *Ibid.*, pp. 156-160.